"국산삽주 창출 아니다"

창출 전량 수입할 경우 백출로 둔갑유통 우려

복지부 대한약전 개정안

지금까지 창출로 시중 유통돼 오던 국내산 삽주(A Japonica Koidzumi)는 이제 더이상 창출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현행 대한약전(6개정)에 수재돼 있는 창출의 기원식물(국내산 삽주 : A Japonica Koidzumi)을 중국과 동일하게 A Lancea D.C 또는 A Chinensis Koidzumi로 바꾸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 대로라면 국내에서는 창출이 생산되지 않음으로 필요한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할 형편이다.

또한 중국으로 부터 창출을 전량 수입할 경우 아무리 이화학 검사방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름만 창출로 수입되어 백출로 유통될 가능성이 큰 만큼 오히려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백출과 창출의 기원식물을 동일시 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백출과 창출의 기원식물을 각각 구분키로 했다.

백출을 현행 「국내산 삽주(A Japonica Koidzumi)의 주피를 제거한 뿌리줄기」에서 「A Japonica Koidzumi 또는 A Ovata Koidzumi의 주피를 그대로 또는 제거한 뿌리줄기」로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약전의 백출에 대한 규정에 개량종 백출(A Macrocephala)을 삽입개정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개량종 백출도 공정서 수재품목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창출로 수입되어 백출로 유통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이화학적검사와 관세청에서의 백출과 창출 분류번호(HS Number)부터 구분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체계적 감시체계 없이 백출과 창출의 기원식물 분류만으로는 백 창출의 혼용 유통을 막을수 없어 기원식물 분류 자체가 무의미해 진다는 것.

『학문적 입장에서 기원식물을 명확히 함은 중요한 일이나 복지부(안)대로 창출의 수재내용이 개정될 경우 유통질서 문란 및 생산자들의 집단민원이 우려되므로 향후 창백출의 수급업무에는 보다 신중성이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문정희 기자〉

사 설

한방정책관실에 거는 기대

그동안 약업계에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시켜 왔던 생약재 규격화 제도가 보건복지부내에 한방정책관실이 신설되어 제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한다는 내용이 연일 관련 신문에 보도되고 있다.

한방 정책과에서는 규격화 대상 한약재의 사용의무화 이외에도 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대상 한약재 이외에 한약재에도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 한약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개정(안)중 한약재와 관련된 사항은 "그간 적정한 품질기준을 관과한 채 무차별하게 들여오는 수입한약재로 인하여 야기될 수도 있는 문제점과 또한 이로인한 국내 생약재배 농가의 피해와 생산위축에 대한 보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혀지고 있으며, 생산농민이 도·소매상에 자신이 생산한 생약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생약 생산농민의 직거래 판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송재성 국장은 "한의약 관리 기준은 개별 한약재의 특성, 재배지 및 재배시기, 기후조건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고 한약재배시 살포한 농약의 종류, 살포량 등을 모니터링하여 검토되야 하며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 한의약 관리기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시사하여 생약농업에 지대한 관심을 피력한 만큼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생약 규격화 제도 시행이 한약재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약재의 질을 떨어뜨리고 가격 상승만 부채질 했다는 다소 치기어린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한방의 기본 원리는 무시한채 단순 포장의 규격화만 실시되었다는 목소리 또한 여러 경로에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특정제품을 사용하라는 법적 통제는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장 경제 자율에 맡겨보는 방안의 도출도 기대해 본다.

생약자원교류 본격화

각 약대 약초원

그동안 독자적으로 운영돼 오던 각 약대 약초원이 공동연구체계로 탈바꿈 함으로써 약학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약학대학약초원협의회(회장 김영중)는 지난달 11일 일산소재 서울대약대 약초원서 정기총회를 개회하고 대학부설 약초원간의 교류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약대 부설 약초원장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약원별로 보유하고 있는 약용식물 보유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이들 생약자원의 목록을 규격화하는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이에따라 각 약초원간 우수 생약자원의 교류는 물론 약초재배 및 식물 유전자 연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각 약초원간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한편, 식물자원 공동분양에 합의했으며 약초원 운영에 따른 노하우를 공유키로 했다.

따라서 약학연구 수행시 근간인 생약자원의 부족현상이 해소됨은 물론 약학 연구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올해 실시되는 약대 종합평가에 대비, 약초원 운영에 따른 제반문제점등에 공동 대처하는 한편, 약초원이 미설치된 약대에 대해서는 약초원 설립을 촉구키로 했다.

한편 협의회는 임기만료된 김영중회장의 후임으로 조선대약대 정명현 교수를 새회장에 선출했다.

이날 신임회장에 선출된 정명현교수는 『약초원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신약개발의 근간인 우수 약용식물 보존과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출과 창출 기원식물 개정(안)

구 분	현 행(6개정)	개 정(안)	비 고
창 출	이 약은 삽주 Atractylodes japonica Koidzumi (국화과 Compositae)의 뿌리줄기이다.	이 약은 가는잎 삽주 Atractylodes lancea D.C 또는 만주 삽주 Atractylodes chinensis Koidzumi (국화과 Compositae)의 뿌리줄기이다.	
백 출	이 약은 삽주 Atractylodes Japonica Koidzumi (국화과 Compositae)의 주피를 제거한 뿌리줄기이다.	이 약은 삽주 Atractylodes japonica Koidzumi 또는 Atractylodes ovata Koidzumi (국화과 Compositae)의 주피를 그대로 또는 제거한 뿌리줄기이다.	Atractylodes macrocephala Koidzumi와 기원이 동일함.

"한의약 문화관" 생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한약상가인 경동시장에 「한의약 문화관」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최근 동대문구 용두동 64의 2 현 건설자재시험소부지 4백여평에 지상 5층(연건평 2천여평) 규모의 한의약 문화관 및 전시관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공사비 등 예산은 90억원으로 오는 2001년 문을 열 예정.

문화관에는 한약재를 쉽게 살 수 있는 도매시장과 한의학의 과거 현재를 보여주는 각종 문헌 및 약재 전시공간이 들어선다. 특히 한의학 육성을 위해 세미나실과 신약개발연구실도 마련된다.

경동한약상가는 대구약령시에 이어 지난해 6월 1일 약령시로 지정됐다. 경동약령시협회는 이를 기념해 매년 6월 첫 한주를 한약축제기간으로 정하고 내외국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방 독감치료제 개발

치료효과 높아

한국한의학연구소(소장 홍원식)는 최근 감기치료에 사용되던 전래의 한방처방 63종과 이 처방에 쓰이는 73종의 한약재를 실험한 결과 이중 13종이 유행성 독감치료제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발표했다.

한의학연구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CW-14등 13종의 한방추출물은 양방독감치료제에 비해 전혀 독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그 우수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고유의 전통한방을 현대적으로 활용할 경우 양약과는 달리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치료효과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한방독감 치료제 개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사

「任」

▲김봉수(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공판장장) ▲임완수(강원도 지부장) ▲손순불(경남 진주시 동부공판장) ▲강경휴(제주도 지부장) (이상 4월 1일부)

「免」

▲김정태 강원도 동해시 사무소장(본인사망) ▲박죽랑 강원도 철원군 공판장장 ▲어재복 강원 강릉시 사무소장 겸 공판장장 ▲김문태 전북 군산시 공판장장 ▲주재만 전북 고창군 사무소장 겸 공판장장 ▲김선명 전남 진도군 사무소장 겸 공판장장 ▲김재용 전남 강진군 사무소장 겸 공판장장 ▲류복규 경북 영주시 사무소장 겸 공판장장(본인사망) ▲강용대 경북 문경군 사무소장(본인 사망) ▲배태환 경북 영덕군 사무소장 겸 공판장장 ▲이규경 경북 의성군 공판장장 ▲성기수 경남 의령군 사무소장(본인 치매) ▲이순우 경남 진양군 공판장장(본인사망) ▲박경옥 경남 사천군 사무소장 ▲이시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판장장 ▲박성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판장장(이상 4월 1일부)

내방

△허성무 부회장 △엄경섭 이사 △임경학 이사 △김용한 이사 △김종근 이사 △김동균 이사 △박영임 이사 △이인기 경기 포천군 사무소장 △조광호 강원 정선군 사무소장 △신상섭 충북 단양군 공판장장